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현정<sup>1\*</sup>, 염영란<sup>2</sup>

<sup>1</sup>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Hyun-Jung Park<sup>1\*</sup>, Young-Ran Yeom<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Nursing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팀워크, 소진, 임상실습 만족도와 의 관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설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G시 4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3학년 1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팀워크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소진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진, 팀워크, 연령이 영향요인이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8.7%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대학생의 소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팀워크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기간동안 소진을 감소하고, 팀워크를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팀워크, 소진, 임상실습 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teamwork, burnout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197 nursing students in G city. The investigation period is from November 11, 2019 to November 21, 2019. As a result of the stud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eamwork,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burnout.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urnout, teamwork, and age were the influencing factors. Those factors explained 38.7% of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most important factors were burnout of nursing students and teamwork. In order to improv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t is considered that a curriculum that can reduce burnout and improve teamwork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is necessary.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Teamwork, Burnou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교내 실습을 통해 사전 임

상실습을 준비하고, 현장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학문을 습득하는 실무학문이다[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현장에서 적용함으로써 통합적 사고능력 개발 및

\*This article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s from the Gwangju University in 2021

\*Corresponding Author : Hyun-Jung Park(gysphj@naver.com)

Received March 11, 2021

Accepted May 20, 2021

Revised May 7, 2021

Published May 28, 2021

창의력과 융합력을 길러주는 학습과정이라는 점에서 간호사로서 기본능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교육과정이다[2]. 그러나 임상실습 교육은 낮은 임상환경에서의 실습 경험과 다양한 여건 속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인해 간호대학생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3].

간호현장에서 간호업무는 환자중심의 돌봄과 환자간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조직에서 팀 활동은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4]. 또한 다른 의료직원들과 협업이 필요하기에 간호교육에서 팀활동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5]. 임상실습은 간호사의 역할을 사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간호 팀 내의 다학제 팀과의 팀워크를 제공받게 되어 전문 간호사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성취하도록 돕는다고 한다[6].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서 가장 의지되는 존재로 실습 동료라고 하였으며[7], 동일하게 배치된 실습 공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공감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 의지하면서 팀워크가 형성된다[8]. 따라서 성공적인 임상실습 적응을 위해 팀워크를 이루는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9].

소진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피로와 감정적 소모가 증가하여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업무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을 의미한다[10]. 간호대학생에게 낮은 임상환경은 새로운 도전이기도하지만 부정적인 임상실습의 노출은 자신감 저하 및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11]. 간호대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기 때문에 점차 학업과 실습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임상환경은 소진을 가중시켜 임상실습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 만족도가 높다면 임상실습 적응과 간호전문직관[9],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14], 무례함, 소진, 대처[15], 비판적 사고 성향[16] 등이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팀워크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실습 적응이 높고[9], 간호대학생들도 팀학습의 팀 구성에 따라 학습만족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17].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고 실습 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

록 간호대학생의 소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18], 간호대학생의 소진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9].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경험하는 소진 유발 상황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19].

지금까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 기존의 연구들은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연구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팀워크, 소진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팀워크, 소진, 임상실습 만족도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팀워크와 소진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임상실습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팀워크, 소진,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팀워크, 소진,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팀워크, 소진,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팀워크, 소진,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한 4개 대학의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료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수집하였고, 연구진행은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였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직접 설명하고, 자료는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함을 안내하였다. 또한 개인적 사항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4 program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alpha = .05$ , 효과크기(effect size) .15, 검정력(power) .95, 예측변수 9개로 예상하였고, 다중 회귀분석을 위한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는 166명이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21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설문지의 내용이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한 19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2.3 연구도구

###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성격, 인간관계, 지각된 건강상태, 종교를 조사하였다.

### 2.3.2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Cho 등[20]에 의해 개발된, Shim[21], Jung[22]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Choi 등[16]가 사용한 도구로서 27문항이며, 하위요인은 실습내용 및 방법(6문항), 실습지도 방법(3문항), 실습환경(5문항), 실습시간(4문항), 실습 평가방법(2문항), 임상실습 후 만족도(7문항)로 구성되었다. 전혀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 등[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0.95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6이었다.

### 2.3.3 팀워크

팀워크는 Chang 등[23]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집단 환경 설문지(Group Environment Questionnaire, GEQ)를 Kim[24]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한 도구로서 총 8문항이며, 하위요인은 과업응집력(4문항), 사회적 응집력(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팀워크가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시 Cronbach's  $\alpha$ 는 .62~.77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69이었다.

### 2.3.4 소진

소진은 Schaufeli 등[25]이 일반인의 소진을 측정하기 위한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를 대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한 학업소진척도(MBI-SS)를 간호대학생에게 사용하기 위해 Hong[26]이 한글로 번역된 MBI-SS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이며, 하위요인은 정서적 탈진(1-5번) 5문항, 냉담(6-9번) 4문항, 무능감(10-15)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능감은 역문항으로 역환산하였다. 전혀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정서적 탈진 .85, 냉담 .78, 무능감 .73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5이었다.

##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팀워크, 소진,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 및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팀워크, 소진,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학생이 148명(75.1%), 나이는 21~25세가 153명(77.7%)으로 가장 많았다. 성격은 내성적과 외향적이 혼합된 학생이 121명(61.4%), 지각된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 70명(35.5%)이었고, 종교는 무교가 124명(62.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97)**

Characteristic	Categories	M±SD or n(%)
Gender	Male	49(24.9)
	Female	148(75.1)
Age	25.91±7.57	
	21~25	153(77.7)
	26~30	16(8.1)
	≥31	28(14.2)
Character	Introspective	43(21.8)
	Introspective+Extrovert	121(61.4)
	Extrovert	33(16.8)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09(55.3)
	Middle	59(29.9)
	Bad	29(14.7)
Religion	Christian	49(24.9)
	Catholic	12(6.1)
	Buddhism	12(6.1)
	atheism	124(62.9)

**3.2 대상자의 팀워크, 소진,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팀워크는 5점 만점에 3.37±0.50점이었고, 소진은 5점 만점에 2.97±0.53점,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5±0.61점으로 나타내었다. 다음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Degree of Teamwork, Clinical Practice Burnout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197)**

Variables	Min	Max	Mean±SD
Teamwork	1.75	5.00	3.37±.50
Burnout	1.00	4.13	2.97±.53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89	5.00	3.55±.61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에서 연령(F=4.24, p=.00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사후검증결과 21세 이상 25세 이하 학생은 36세 이상 학생들보다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26세 이상 30세 이하 학생들은 36세 이상 학생들보다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다음은 Table 3와 같다.

**Table 3. Degree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ccording General Characteristics (N=197)**

Characteristic	Categories	Mean±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68±.61	1.80	.074
	Female	3.50±.60		
Age	25.91±7.57		3.54	.031* a,b>c
	21~25 <sup>a</sup>	3.57±.58		
	26~30 <sup>b</sup>	3.75±.62		
	≥31 <sup>c</sup>	3.29±.69		
Character	Introspective	3.58±.51	.22	.800
	Introspective+Extrovert	3.55±.59		
	Extrovert	3.49±.74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3.61±.62	1.67	.190
	Middle	3.43±.51		
	Bad	3.53±.69		
Religion	Christian	3.52±.66	.782	.51
	Catholic	3.39±.30		
	Buddhism	3.75±.70		
	atheism	3.56±.60		

\* p<.05

**3.4 대상자의 팀워크, 소진,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팀워크, 소진, 임상실습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팀워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r=.395, p<.001), 소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536, p<.001). 팀워크는 소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234, p<.001). 다음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Teamwork, Burnout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197)**

Variables	Team-work	Practice Burnou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ρ)	r(ρ)	r(ρ)
Teamwork	1		
Burnout	-.234** (.001)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95** (.001)	-.536** (.001)	1

\* p<.05 \*\* p<.01

### 3.5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상실습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차이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령과 임상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팀워크와 소진 변수를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중 연령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였다.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F=32.862$ ,  $p<.001$ ),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909 ~ .988로 1.0이하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12 ~ 1.100으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1.702로 2와 가까워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진( $\beta = -.456$ ,  $p<.001$ ), 팀워크( $\beta = .291$ ,  $p<.001$ ), 36세 이상( $\beta = -.156$ ,  $p=.006$ ), 26-30세의 학생( $\beta = .120$ ,  $p=.037$ )순이었고 이러한 변수들은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39.4%를 설명하였다. 다음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197)**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3.934	.345		11.418	<.001
Burnout	-5.23	.066	-.456	-7.959	<.001
Teamwork	.351	.070	.291	4.992	<.001
Age(>35)	-.293	.106	-.156	-2.763	.006
Age(26-30)	.264	.126	.120	2.106	.037
Adjusted R <sup>2</sup> =.394, F=32.862,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팀워크와 소진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5점으로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Seo 등[27]의 3.46점, Jung 등[28]의 3.32점, Kim 등[19]의 3.48점과는 유사하였고,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 등[29]

의 2.81점, 간호학과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한 Seo[30]의 2.64점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습기관에 따른 환경적 차이도 있겠지만 본 연구는 처음 임상실습 경험을 한 3학년을 대상으로만 하였으므로 학년별로도 임상실습 만족도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학은 실천을 위한 응용과학이므로 충분한 이론습득을 통해 임상실습 교육현장에서 임상적 판단과 문제해결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실현하고 그 의미를 갖게 되었을 때 임상실습 만족도는 더욱 향상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임상실습은 학년별, 단계별, 실습교과목 목표 달성에 맞는 차별화된 실습경험이 요구되며, 현장실습기관의 간호사의 체계적 지도를 통해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이 필요하다.

팀워크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Kim[24]의 3.52점, Park 등[8]의 3.82점에 비해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연구자마다 대상자 수, 학년, 성별 등에 차이가 있었고, 각 학교별 교육과정에 따른 실습환경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팀워크 수준이 보통이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팀워크를 향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기간 동안 실습동료를 가장 의지하는 존재라고 하였고[7], 팀워크는 학습행동, 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임상실습 시 실습 구성원의 응집력이 좋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된다고 하였다[31]. 또한 팀워크가 강할수록 임상현장에 적응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9], 임상 현장에서 간호전달체계는 팀 간호방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소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7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등[15]의 3.41점, Hong[26]의 3.0점이었고, 4학년을 대상으로 한 Cho 등[32]의 2.92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 간 소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학년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다른 대학생들에 비해 소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3]. 간호대학생은 전공지식과 더불어 임상실습이 진행되는 교육과정으로 소진이 더 유발되며, 낮은 실습환경에서의 유쾌하지 못한 경험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행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소진은 가중되어, 소진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의미한다[15]. 소진이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은 피로감을 느끼고 학업몰입도가 감소되며, 직무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34]. 결론적으로 소진을 감소하기 위해 임상실습기관과 간호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팀워크, 소진, 과 임상실습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팀워크와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소진과는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팀워크가 좋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임상실습에서 같은 팀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진취적일수록 전문직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는 Park 등[8]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진이 감소할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소진은 임상실습 만족을 감소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Kim 등[15], Gibbons[12]와 일치하였다. 소진은 졸업 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간호사 직업선택의 후회와 이직에 영향을 주므로[34]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소진을 감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팀워크, 소진 모두 임상실습 만족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설명력은 39.4%( $F=32.862, p<.001$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만족도가 소진과 팀워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게 되는 소진과 팀워크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선행연구는 미흡하여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에게 자신이 향후 임상에서 전문적인 간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실습 시에 적절한 상호작용으로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킨다면 졸업 후 긍정적인 사회화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진의 정도가 높을수록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만족감과 자부심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임상실습 교육에서 팀워크 향상 방안과 소진의 감소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팀워크, 소진, 연령으로 확인되었고, 간호대학생에게 있어서 간호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팀워크, 소진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과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에

서는 임상실습 관련 프로그램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임상실습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상실습 질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개 지역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팀워크, 소진,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확인한 결과 간호대학생은 팀워크가 높을수록, 소진이 낮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요인은 소진, 팀워크, 연령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지역과 대학의 확대와 반복적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임상실습을 적용하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실습 만족도, 팀워크를 향상하고, 소진을 감소할 수 있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E. E. Kim & B. Y. Lee.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4(10), 885-896.
- [2] S. O. Shin. (2017). Relation among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7(6), 19-24. DOI : 10.22156/CS4SMB.2017.7.6.019
- [3] G. Bronner, C. Peretz & M. Ehrenfeld. (2003). Sexual harassment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2, 637-644. DOI : 10.1046/j.1365-2648.2003.02667.x
- [4] M. K. Song & S. I. Park. (2018). The effect of teamwork of nurses job satisfaction,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ocial

- problem solving ability,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0), 735-744.
- [5] W. J. Yun. (2007). Development of Scale or Individual's Teams 5 work Skill and Study for Valid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6] J. Liaschenko & E. Peter. (2004). Nursing ethics and conceptualizations of nursing profession and practice and work, *Journal of Advance Nursing*, 46(5), 488-495
- [7] J. H. Yang. (2012). Kore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3(3), 128.
- [8] I. S. Park, M. S. Seo & S. S. An. (2020). Study on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Capacity,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and Teamwork of Students of Nursing Management Practice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14(2), 13-25.
- [9] C. H. Chong, S. H. Hong, S. H. Oh & M. H. Song. (2020). The Effects of Teamwork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linical Practicum Adaptation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9), 53-61.  
DOI : 10.22156/CS4SMB.2020.10.09.053
- [10] M. Magni, L. Proserpio, M. Hoegl & B. Provera. (2009). The role of team behavioral integration and cohesion in shaping individual improvisation. *Research Policy*, 38(6), 1044-1053.
- [11] J. Randle. (2003). Bullying in the nursing profess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3, 395-401.  
DOI : 10.1046/j.1365-2648.2003.02728.x
- [12] C. Gibbons. (2010). Stress, coping and burn-ou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Studies*, 47(10), 1299-1309.
- [13] H. S. Yu. (2015).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2), 1129-1144.
- [14] S. H. Kim. (2017). Influence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2), 163-182.
- [15] J. G. Kim, H. Y. Jang & E. Y. Cheon. (2017). Relationship among Incivility, Burnout, Coping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316-324.  
DOI : 10.5762/KAIS.2017.18.1.316
- [16] M. Y. Choi, T. Y. Moon & H. J. Lee. (2013).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ntention of recommendation among paramedic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3), 1301-1312.  
DOI : 10.5762/KAIS.2013.14.3.1301
- [17] I. A. Kang & E. S. Jung. (2010). A Qualitative Analysis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tudent-Selected Teams and The Learning Style-based Teams in terms of Their Satisfactory Levels on the Learning Activiti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2(93), 67-95.  
DOI : 10.17927/tkjems.2010.22.3.67
- [18] H. H. Cho & J. M. Kang. (2017).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burnout in student nurse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2) 199-206.  
DOI :10.4094/chnr.2017.23.2.199.
- [19] M. S. Kim & J. A. Park. (2018). Effects of incivility experienced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urnout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0), 811-828.  
DOI : 10.22251/jlcci.2018.18.10.811
- [20] K. J. Cho & H. S. Kang. (1984).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14(2), 63-74.
- [21] H. S. Shim. (2001). The Status of Clinical Practice by Dental Hygiene Student at Kwangju · Chonnam Area Colleges. Major in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and Health. Chosun University.
- [22] Y. H. Jung. (2003). Satisfaction on the clinical training of collag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technique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 Public Health.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Seoul.

- [23] A. Chang & P. Bordia. (2001).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group cohesion-group performance relationship. *Small Group Research*, 32(4), 379-405.
- [24] S. Y. Kim. (201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25] W. B. Schaufeli, I. M. Martinez, A. M. Pinto, M. Salanova, A. B. Bakker.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
- [26] Y. K. Hong. (2016).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Coping, and Burnout in clinical practice.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27] Y. S. Seo & C. Y. Jung. (2020). Development and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y Promoting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7), 90-99.
- [28] M. S. Jung & H. J. Kwon. (2015).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  
DOI : 10.5977/jkasne.2015.21.2.256
- [29] H. J. Park & I. S. Jang. (2010).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16(1), 14-23.
- [30] W. H. Seo. (2007).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Master's thesis. Kyungpook University, Daegu.
- [31] S. A. An, S. Y. Baek & E. Y. Jung. (2018). A Study on the Team Sharing Spirit, Team Effectiveness, Team Cohesion, Team Reliability,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4), 751-766.  
DOI : 10.22143/hss21.9.4.53
- [32] H. H. Cho & J. M. Kang. (2017).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burnout in student nurse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2), 199-206.  
DOI : 10.4094/chnr.2017.23.2.199
- [33] D. Z. Fang, C. B. Young, S. Golshan, C. Mourtier & S. Zisook. (2012). Burnout in premedical undergraduate students. *Academic Psychiatry*, 36(1), 11-16.
- [34] Z. F. Daniel, G. Shah & Z. Sidney. (2012). Burnout in premedical undergraduate students. *Academic Psychiatry*, 36(1), 11-16.  
DOI : 10.1176/appi.ap.10080125

## 박 현 정(Hyun-Jung Park)

[정회원]



- 2017년 2월: 단국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6년 3월 ~ 2017년 8월: 전남 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8월 ~ 현재: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 E-mail : gysphj@naver.com

## 염 영 란(Young-Ran Yeom)

[정회원]



- 2019년 8월 : 단국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7년 3월 ~ 2019년 8월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9년 8월 ~ 현재 : 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성인간호
- E-mail : kjmbc@hanmail.net